

삼성·메리츠화재 '웃고', DB·KB·현대해상 '체면 유지'

국내 5대 손보사 3분기 실적 희비

삼성화재, 당기순이익 27% 증가
메리츠 누적순익 1.3조, 2위로 꺾춤

DB손보 누적순익 전년비 8% 줄고
KB손보·현대해상도 순익 감소

국내 5대 손해보험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희비가 나뉘고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쾌재를 불렀지만 나머지 손보사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마진(CSM) 증가로 체면을 살렸다.

삼성화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1조64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967억원) 대비 26.9%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삼성화재

(349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세전이익(2조2204억원)도 전년(1조7650원) 대비 25.8% 늘었다.

특히 3분기 누적 장기보험순익은 1조3004억원으로 전년(1조204억원) 대비

27.4%(약 2800억원) 상승해 실적을 견인했다.

3분기 신계약 CSM은 신상품 출시, 포트폴리오 개선 중심의 전략으로 1조1642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신계약 CSM은 2조6068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2위였던 DB손해보험을 추월했다. 메리츠화재는 3분기까지 1조3353억원의 순익을 거둬 삼성화재에 이어 누적 순익 2위를 차지했다. 전년(1조542억원) 대비 26.7%(약 2811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D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2620억원으로 전년(1조3750억원) 대비 8%(약 1130억원) 감소해 메리츠화재에 2위 자리를 내줬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역시 순익 감소를 피해가지 못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익은 6803억원으로 전년(6999억원) 대비 2.8%(약 200억원)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전년(8550억원) 대비 8%(약 700억원) 감소한 7864억원

의 3분기 누적 순익을 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통일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일시적 요인 등으로 순익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다만, 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CSM은 성장했다.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해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하는 IFRS17 특성상 CSM 성장은 미래영업이익 증가를 의미한다.

DB손해보험의 3분기 CSM은 12조6000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전분기(12조2000억원) 대비 약 4000억원 늘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CSM은 9조1840억원으로 지난 2분기(8조5400억) 대비 14%(약 1조1300억원) 증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체 장기인(人)보험 MS(시장점유율) 자체가 2분기 때보다 많이 올라서 CSM도 많이 성장했다"며 "CSM 증가를 봤을 때 안정

적인 이익으로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전분기(8조5600억원) 대비 약 3070억원 상승한 8조8670억원의 CSM을 기록했다. 장기보험 CSM 상각 수익 증가와 일반·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현대해상의 올해 3분기 CSM 상각 수익(2209억원)은 전년 동기(1760억원) 대비 25.5%(약 450억원) 증가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외부회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부분 이외에 CSM 성장에 따른 이익 체력 비교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가이드라인 도입 영향이 컸다. 전진법 적용으로 보험사들은 실적에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CSM 성장으로 체력적인 부분은 더 좋아하는데 외부적 영향으로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ooul.co.kr

사회 초년생 첫 금융 '파킹통장·자유적금' 제격

파킹통장, 금리 양호·입출금 자유
자유적금, 적립액 자유·높은 금리

'예비 사회 초년생'에게 '파킹통장'과 '자유적금'이 '생애 첫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킹통장은 양호한 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을, 자유적금은 자유로운 적립액과 높은 금리가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비 사회 초년생'인 수능 수험생을 겨냥해 청년 특판 대상 연령 확대, 금융 겸용 학생증 개선, 급여 계좌 개설 이벤트 등 '예비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상품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예비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상품을 쏟아내는 가운데, 지방은행·외국계 은행이 취급을 늘린 '파킹통장', 인터넷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자유적금'이 예비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생애 첫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킹통장'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최대 1%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만큼 소액 경제 활동이 잦은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하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지방은행·외국계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시중은행 영업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기기. /뉴시스

도 '파킹통장'형 상품 취급을 늘렸다.

전북은행의 '씨드모아 통장'은 연 최대 3.6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95%이며, 올해 가입 고객에게는 6개월간 0.7%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과 거래 내역이 없는 신규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제일EZ통장'은 연 최대 3.6%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6%이며, SC제일은행과 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가입 시 6개월간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00만원 이하의 초과예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동 이자율을 적용한다.

BNK부산은행의 '마!이통장'은 연 최대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100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에 대해 1.4%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만 14세~만 39세의 개

인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자유적금' 상품은 최대 적립액 한도는 정해져있지만, 납입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적금 상품이다. 수입이 불안정한 예비 사회초년생들에게 적합한 저축 수단이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은 연 최대 4.4%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4.3%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를 차등 제공한다. 월 적립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최대 4.2%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4.0%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를 차등 제공한다.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액을 납입할 경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 적립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전처럼 수험생 특판을 내놓지는 않지만, 청년 대상 상품에 청소년을 포함하거나 사회초년생의 접근이 쉬운 비대면 전용 상품을 늘리고 있다"며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혜택이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상품보다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신기술 개발

바닥차음·모듈러 난방 급탕 시스템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탕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슬래브 신규(新舊) 접합부 연결 기술을 시작으로, 올해 LG

전자와 '리모델링 맞춤형 가전제품', 포스코 특수강건축 구조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탕시스템'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바닥 차음시스템'을 적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듈러형 난방 급탕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난방 급탕 통합열교환기와 연결 배관의 모듈화로 공장에서 조립해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치 면적을 최적화해 고객에게 추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 품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경찰청이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계좌간 송금·이체된 경우만 구제가 가능해 대면편취형의 경우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경찰청이 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검거하면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30영업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전산개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했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에코플랜트, CES 혁신상 2건 수상

환경·건설 역량 시너지 글로벌 무대 인정

SK에코플랜트의 환경·건설 역량 시너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16일 폐기물 솔루션 '피클(PICKLE)' 및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안심(안전에 진심)'이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에 앞서 전 세계 혁신 기술 상품을 접수, 평가해 기술·디자인 등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혁신상을 수여한다.

피클은 지속가능성, 친환경디자인&스마트에너지(Sustainability, Eco-Design & Smart Energy) 부문에서, 안심은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에코플랜트의 '안심' 및 '피클' 로고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상작 2건 모두 신사업과 기존사업 간 역량이 집약된 플랫폼으로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지나해와 올해 CES 혁신상 수상은 SK에코플랜트의 환경과 건설 두사업의 조화로 탄생한 서비스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은 환경사업과 기존 건설사업을 연결하기 위한 SK에코플랜트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